

지역 매아리

부안군, 미세먼지 감소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부안군은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해 조기 폐차 수요가 많아 올해에는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추가로 지원하며 자격조건은 부안군에 2년 이상(연속) 등록되고 차주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검사 정상기동 판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누리집(amos.ngrade.mecar.or.kr)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7435)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2개월내 폐차를 완료하고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에 의한 배기 가스를 감축하고 도시 단속을 강화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연지시장 먹거리타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지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용역사인 (주)케이피에의 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참석되어 가고 있는 연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의 연계방안 분석과 정읍시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먹거리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유진섭 정읍시장, 황혜숙 정읍시의회의원, 정상철 정읍시의회의원,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등 시 관련부서장을 비롯한 연지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관련 단체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용역업체로부터 연지시장의 현황·상권 분석과 특색 있는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한 시장컨셉 도출·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구성방향에 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용역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해 이달 중순 21일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친환경차 보급 확산 본격 추진

고창군, 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1500만원 지원... 오늘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고창군이 11일 홈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나선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3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한다. 보조금은 차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구매 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해 접수된 경우 순위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으로 1순위(배정 9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된다. 2순위(배정 21대)는 일반인으로 구분되고, 1순위 신청미달 시, 2순위로 배정된다.

군은 이날 고창군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오늘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통해 홈페이지(www.ev.or.kr)접수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신청만 할 수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대기측정망 신설, 노후경유차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정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지난해 정읍시에서 열린 3.1운동 기념행사.

민족자존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 되새긴다

정읍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만세삼창 · 시가행진 퍼레이드 등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내달 1일에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을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정신인 자주·자강·화합·평화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민 통합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하기로 했다.

JCI태인청년회의소(회장 박민우)가 주관하고 정읍시와 국가보훈처,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시 등 10개 보훈단체의 후원으로 열리는 행사는 오는 3월 1일 10시부

터 태인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태인 3.1운동기념탑 참배 후 태인초등학교에서 기념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기념식과 시가행진 퍼레이드, 재현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회 행사와 달리 전문 연극단의 태인지역 3.1운동에 대한 재현극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태극기 페이스페인팅, 손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 등 체험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난에 처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

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란다"며 "태인지역의 성숙한 3.1만세운동의 위대함과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6일 태인 장날 정오에 정읍 태인지역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한병대의 무력제지에도 불구하고 약10일간 계속되는 등 정읍지역의 민족운동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항일 구국운동의 모습이며 호남지역 독립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읍시는 매년 3월 1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소셜 네트워크 통한 시정정보 홍보 강화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2019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소셜네트워크(SNS) 통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화, 행사, 재난, 날씨, 민원안내, 생활정보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을 활용한 시정 안내는 전년 대비 1천명 이상 구독자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댓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 대표 블로그 또한 인기가 높아 전년보다 방문자가 20만명 증가하여 평소 방문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감 있는 사진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개발로 '네이버 우리 동네'의 베스트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SNS) 채널의 확산을 통해 정읍의 속속들이 알려 성공적인 정읍방문의 해와 정읍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초에 SNS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씨 없는 수박 반축성 재배단지 수출 준비 박차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원)는 11일 단종미인 씨 없는 수박 반축성 재배단지의 수박 수출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와 농업인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수박산학연협력단(단장 송춘호)와 전북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실장 성문호), 정읍시공선출하회(회장 최명환), 단종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 덕수인터네셔널(차장 이종훈)이 참석하여 수출 시기와 양을 협의하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꽃가루 생산업체인 협의회는 오렉(Orec)사의 메이유씨가 강사로 나서 씨 없는 수박 반축성 재배단지 농가 22명을 대상으로 SWT(Seedless Watermelon Technology) 씨 없는 수박 수정과 초기관리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씨 없는 수박 반축성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SWT꽃가루 지원사업에 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배 농업인과 전북산학연협력단, 수박시험장,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기술지원을 위해 매주 농가 포장을 순회하며 토양개량, 생산기술,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있다.

농업인들도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수박시험장에서 추진하는 수박아카데미(월1회) 교육에 참여하여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에서는 지난 2018년도에 33톤을 일본에 수출했으며, 금년에는 50톤의 수출을 목표로 품질향상과 재배기술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올해도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해 시는 경영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1억6000만원)과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2억5000만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낙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5000만원),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맵·브랜드개발·디자인개발 등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8000만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6000만원), 관내 GM대우 협력업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전라북도 외에서 신규 부품 물량 수주 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2억원) 등 총 10억여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기본요건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체여야 하며, 사업관련 공정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특구지원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달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에 배부한 '정읍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시책' 책자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시, 우편으로 책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